



청와대, 강정마을 여론 추이 ‘촉각’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제주 급파… 국제관함식 반대 목소리 청취

“행사 추진과정에 정부와 해군의 관리 부적절 인정”

“국제행사라 실행 불가피”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관련 반대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제주에 급파된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원희룡 지사와 김태석 의장을 면담한 데 이어 강정마을회를 찾아 국제관함식 개최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용선 시민사회수석과 조정자 선임 행정관, 정재혁 행정관, 육성철 행정관은 18일 오전 제주를 찾아 원희룡 제주 도지사와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을 잇따라 면담했다. 이들의 방문은 최근 강정마을회와 시민사회단체, 각 정당에 이어 제주도의회까지 ‘제주 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국제관함식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청와대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행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수석은 원 지사와의 면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제주지역에 또 현안 갈등으로 등장하고 있는 관함식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을 포함해 지역사회의 각계의 의견을 듣고 마지막 조율작업을 하기 위해 내려왔다”고 말했다.

이에 원 지사는 “시민사회수석님이 시민사회의 여러 민주화운동에도, 또 우리민족 서로돕기로 남북교류 활동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주도의 갈등해결, 남북교류협력에도 많이 힘을 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어 제주도의회를 찾은 이 수석 일행은 김태석 의장과 김희현 부의장, 허창옥 부의장과 면담했다. 이 수석 일행과 원 지사 및 김 의장 등의 면담은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나는 (국제관함식을) 군사작전이 아니라고 보지만 해군이 말을 바꿔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이 상실됐고, 강정주민들의 신뢰도 잃었다”며 “처음부터 투명하게 진행했으면 이런 사태가 덜 했을 수도 있는데 아쉽다. 군이 아직도 권위주의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수석은 “과정상 정부와 해군의 관리가 적절치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다시금 갈등이 확산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나 군에서도 원치 않는 일”이라며 “이런 의도가 충분히 주민들에게 공유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지만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이제는 결론을 내려서 실행해야 할 단계에 도달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오후 6시10분쯤 강정마을을 찾은 이 수석 일행은 지난 6월 개관한 강정커뮤니티센터 2층 회의실에서 강정주민들과 면담했다. 강희봉 강정마을회장과 강동균 전 회장 등 주민 10여명과 이날 면담은 비공개로 1시간 넘게 계속됐다.

특히 이 수석은 모두발언을 통해 “수석으로 자리 잡은 지 얼마 안됐지만 사안이 중해서 왔다”며 “도지사와 도의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니 알고 있던 거와 달랐다. 주민들 이야기를 직접 듣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표성준·조흥준기자



18일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일행이 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과 관련해 강정마을을 찾아 주민들과 간담을 갖고있다. 조흥준기자

관급공사 현장서 中 불법체류자 16명 적발

설문대할망전시관 건립 현장… 출입국청 “모두 강제추방”

제주도내 한 관급공사 현장에서 불법체류 중국인 노동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8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하 제주출입국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제주 시 조천읍 제주돌문화공원 내 설문대할망전시관 건립 공사현장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불법체류

자 16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체류기한을 넘기고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그간 공사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사장 내 컨테이너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제주출입국청은 이들을 불법 고용한

공사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적발된 중국인들은 모두 19일 안으로 강제 추방할 방침이다.

관급공사 현장에서의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문제가 불거진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제주지부 등이 수차례

서귀포소방서 신축공사 현장을 비롯해 대정읍 가파도 프로젝트 사업 건설현장을 포함한 다수의 관급공사 현장에 불법체류자가 투입됐다가 적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출입국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외국인 불법취업자 1072명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603명, 2016 1158명, 2017년 1445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현재 도내 불법체류자 수는 1만2000여명이며 이 가운데 절반인 6000여명이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도소방본부, 학교앞 ‘엘로카펫’ 사업 확대

제주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추진되는 ‘엘로카펫’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2일부

터 17일까지 제주시 신광초와 동화초, 한라초, 서귀포시 표선초 통학로에 엘로카펫을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도내 13개 학교에 설치된 엘로카펫은 횡단보도 앞 노란영역 안에서 안전하게 교통신호를 기다릴 수 있게 유도하고, 운전자에게는 보행자를 쉽게 인식하도록 해 사고를 예방하는 차

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제주소방본부 관계자는 “향후 도내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 및 엘로카펫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 포항 헬기 ‘마린온’ 추락사고 후폭풍

제주 소방헬기 운항 전면중단

포항-제주헬기 동일모델 내달 현장배치 차질 예상

다음달로 예정된 제주 다목적 소방헬기 ‘한라매’의 현장배치가 경북 포항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사고로 인해 차질을 빚게 됐다. 두 헬기 모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개발한 ‘수리온’을 기반으로 제작된 기종이라 이번 포항 사고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제주소방이 한라매 운항을 전면 중단했기 때문이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야간·해상비행, 한라산 인명 구조 등 임무 숙달 훈련 중이던 한라매에 대한 모든 운항을 중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중단은 지난 17일 오후 4시 45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해군 제6항공전단 비행장에서 마린온이 추락해 승무원 6명 가운데 5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에 따른 것이다. 추락한 마린온(MUH-1)과 한라매(KUH-1EM)는 모두 KAI의 수리온(KUH-1)을 원형모델로 만들어진 헬기다.

이로 인해 다음달 예정된 한라매의 현장배치와 ‘제주도 소방항공대’ 발대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규정된 비행시간을 다 채우지 못했을 뿐더러 구조·구급·재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실무자 훈련도 아직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제주소방본부 관계자는 “마린온 추락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지난 5월 제주에 도착한 다목적 소방헬기 ‘한라매’ 모습. 사진=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접촉해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며 “한라매 훈련 과정에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만일에 발권될 수 있는 결합에 대비해 이번엔 운항을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라매는 제주소방본부가 지난 2015년 252억원을 들여 KAI와 계약한 헬기다. 최대 순항속도는 270km로 한번 급유에 최대 670km까지 비행이 가능해 제주에서 발생한 중증 응급환자를 수도권까지 이송할 수 있다. 또한 응급의료장치(EMS Kit)와 전자광학 적외선 카메라, 인명구조 인양기, 배면 물탱크 등이 장착돼 실종자 수색과 인명구조, 화재진압 등의 임무 수행도 가능하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수리온이 결빙성능과 낙뢰보호기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으며, 전방유리 파손이 잦고 기체 내부에 빛물이 새는가 하면 엔진형식인증을 거치지 않아 비행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발표해 부실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예멘 난민 손 잡아줘야”

제주불교계 호소문 발표

예멘 난민들이 제주불교 대책위원회(위원장 허운 스님)는 최근 호소문을 발표하고 “예멘 난민 신청자의 슬픈 손을 잡아줘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자국 내전으로 500여명의 예멘인이 제주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찬반논쟁이 뜨겁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우리 민족 역시 주변 국가의

침략으로 인해 시베리아나 중국, 만주 등으로 쫓겨나 난민 아닌 난민으로 설움을 받았다”며 “제주에서도 4·3이라는 재앙의 소용돌이 속에 많은 도민들이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본으로 향했던 슬픈 모습의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우리를 찾아온 난민을 문전박대하는 편협한 이기적 자세는 수십년 전 우리의 모습을 망각하는 것”이라며 “자리아타(自利他他)의 숭고한 불교 정신과 보살의 자비심으로 난민들의 슬픈 손을 잡아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송은범기자

공사장 방화 30대 실행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28일 0시10분 제주

시 연동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가스라이터를 이용해 건축물 가림막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이씨는 이어 이날 0시55분쯤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장 외벽에 설치된 분진망에 불을 붙여 분진망과 건물 아래 주차했던 차량 일부까지 태웠다.

이현숙기자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멋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7월~9월까지

45인승 1일 40만원 부터~
25인승 1일 25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 · 미도투어

위치 : 제주시 용담1동(오라오거리) ☎713-1951

상담 유옥 중 010-5015-1951

(주)제주시시스템비게 (주)한진철거

시스템비게 (클린사업) 등록업체
(소규모현장 시스템비게설치시 정부지원)

시스템비게 임대(판매)

안전 발판 임대(판매)

정확한 설계

안전시공

비게 공사 전문건설업

철거 공사 전문건설업

석면 해체, 제거업

관련문의

722-0407, 724-1420

감귤 신제품 분양

2019년 봄 출하예정 목록 분양접수 중

만감류

레드향(무독) · 천혜향(무독)
한라봉 · 황금향 · 레몬
아마나스 · 망유자 · 아수미

조 생

유라실생 · 궁천(궁천변이지)
하례 조생

농장위치 :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우유소에서 모슬포방향 300m 위치)

종자업 등록번호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010-3055-1885

벨톤보청기

제주점

✓ 신규 오픈 기념 행사

✓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지원

✓ 난청 전문상담

✓ 보상판매, 보청기 무료체험

✓ 신제품 1+1 특가, 전품목 할인

1개월 착용 해보고 결정하세요!

725-2544

제주시 중앙로 71, 2층(중앙로 사거리)

심의번호 2017-GN1-40-0063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처 : 벨톤보청기 제주센터